

# 계약 취소 했다고 구입 불가라니



이정주 칼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자동차 구입시 지정·대리점을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어처구니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차량 구입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소비자들에게는 2~3달 정도 다른 영업점에서는 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종의 소비자 제재 조치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전산에 계약을 입력해버린다면 소비자는 처음 방문하는 영업점에서 처음 만난 영업사원에게 무조건 차를 구입해야만 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규정을 엄밀히 따져보면 해약한 소비자가 다른 영업점에서 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영업점에서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차를 판매하더라도 먼저 계약했던 영업사원이 차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실적 및 수당을 먼저 계약했던 영업사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 하에서 다른 영업점에서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비용까지 들여 힘들게 차량을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업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아예 차량을 팔지 않는 것이다. 개중에는 먼저 계약했던 영업사원과 협의하여 수당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도 있었다.

결국 이런 불량 규정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침을 발라 놓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먼저 전산 계약을 입력하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해당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고, 해당 소

비자는 자신에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영업사원들의 불친절과 배짱 영업까지도 유발하고 있다.

이달 초에도 영업사원의 일방적 계약에 따른 계약해지로 앞으로 2달 동안은 차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해결해 준 사건이 있다. 소비자는 “생애 첫차 구입이라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었다. 영업사원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결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을 알게 되면 정보를 폐기한다는 말만 믿고 신분증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영업점에 갔는데, 계약 사실이 있어서 2달간 구입을 할 수가 없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계약을 진행한다는 문자 하나도 없었으며, 계약금도 지급한 적이 없다.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온다.”고 분개하며 호소하였다. 연맹에서 전화하자 영업사원은 “계약을 해지해 주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 구입 제한 해제 조치는 회사 규정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본사에 연락하여 구입 제한 조치를 풀어주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적반하장 대응은 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마음대로 정해 놓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사유 때문이다. 전산 계약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런 영업사원들이, 향후 본인에게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영업점에서는 일정 기간 구입이 불가하다는 말을 해 줄 리가 만무하다. 만약 이런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있다면 시기관매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첫째는 회사의 약규에 순응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른 영업점에서 차를 구입하거나, 둘째는 기분은 나쁘지만 계약을 해지했던 영업사원을 다시 찾아가 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셋째는 다른 회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데, 대개 차량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도 하고,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차량의 성능과 외관은 물론 자신의 취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차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한 차종을 다른 회사 차종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 상황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가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구입하려던 차보다 한 단계 낮추어 하향 조정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꼭 그 차를 구입하겠다며 연맹에 도움을 요청해 온 사건들은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즉각 제한조치를 해제해 주어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나 불이익 없이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만약 자신들이 판매 거부하는 경우 다른 회사 차를 구입할 것이 자명하다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그런 시건방을 떨겠는가? 자동차 회사들은 한 번 차량 계약을 한 소비자라면 심심팔구 그 차량을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도판대라는 미명 하에 정가 판매를 요구하는 것처럼 설사 몇 건을 놓치더라도 소비자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자사 영업사원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연맹의 요구에 협조적으로 해결해 준 사건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의 회사명과 차종은 공개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향후 입장 표명 요구에는 답이 없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 사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절차 간소화 보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대란 차단을 요구한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 고용부가 일부 특별고용지원업종뿐만이 아닌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휴업·휴직 수당의 67%(3분의 2)를 지원받던 비중이 90%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일단 숨통은 트이게 됐다. 가령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급 200만 원을 주던 노동자의 고용을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인 14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90%에 해당하는 126만 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서 사업주는 매월 14만 원만 부담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 500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 고

용유지지원금이 오는 5월부터 지급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선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상 업체가 늘어나면서 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도 한 달 이상 걸린다는 하소연이다.

그런 까닭에 현장에서는 자금 수혈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선지급 할 여력이 없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은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선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원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 시민당 졸속 창당과 누더기 공천... 민주당의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내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공천 작업은 마무리 했지만 창당과 공천과정에 꼼수가 난무하고 이제 '의원 임대'까지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증발하고 졸속과 누더기 공천으로 역대 최악이란 비난을 듣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이라고 만든 더불어민주당 당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진보성향의 '진문(진문재인)진조국' 색채의 신생 군소정당 5곳이 참여했다가 2곳은 '아베만도 못하다'고 비난하며 떠나고 그나마 남은 정당들도 유명무실하다. 무늬만 연합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초 진보 원로와 검증된 소수당 등과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다가 그들을 배척하고 파트너를 바꿨다.

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도 요란한 잠을 내고 있다. 시민사회·소수정당과 함께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던 시민당은 당선권 안에 소수정

당 인사 2명만 배정, 구색만 맞추고 토사구팽 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검증된 자신들을 비례대표 명단 앞순위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정당투표지의 앞번호를 확보하고 선거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서 '의원 귀주기도 후안무치다. 미래통합당의 의원 과관에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며 고발까지 해놓고 자신들도 되풀이하니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해한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시민당 과관을 중용하고 있다.

'비례정당은 절대 안 만든다'던 민주당이 말을 뒤집어 비례정당 창당에 나선 것부터 의원 임대, 선거자금 귀주기까지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협박으로도 보인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표심을 왜곡하는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착잡하다. 유례없는 혼란으로 갈수록 후진하는 정치를 어떻게 단죄해야 할지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다.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주미안파대사관 지동선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운영과장 박익상
- 환경미디어그룹 ◇ 한국경제신문 △ 상임논설위원 이학영 △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현승윤 △ 상무부 광고국장 송광림 ◇ 한국경제매거진 △ 대표이사 유근석 ◇ 한경BP △ 대표이사 손희식
- 에이클라 미디어그룹 ◇ 신규 선임 △ 스타티비 대표·스포티비 방송사업부부장

- 강명국
- 동정** △농협대 새 총장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선임
- 농협중앙회는 농협학원 이사회에서 신임 농협대 총장으로 최상목(57)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 부고** △정경원씨 별세, 정승기(침단바로본의원 물리치료실 실장)씨 부친상, 박진영(한국에탁결제원 광주

- 지원 수석위원)·문병식(대신증권 프로젝트 부문 상무)·김관섭(피엘산업 대표)·이수환(전남대학교 기획조정실 팀장)씨 장인상 = 24일 낮 12시 40분, 광주광역시 광주 VIP 장례식장 20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062-521-4444
- △김정욱씨 별세, 김성후(기자협회보 편집국장)씨 부친상 = 24일 오후 11시 45분, 전남 강진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장흥군 건산리 선영. 061-432-4004

**아시아타임즈** www.asiatime.co.kr 대표 전화 (02) 801-1800 팩스 (02) 801-1819

대표이사·발행인 조용하	편집국장 송남석	주필 강현직	인쇄인 이정자
2013년 7월 1일 창간 2013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가 0992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편집국 (02) 801-1800	정치사회부 (02) 801-1861	생활경제부 (02) 801-1853	
광고국 (02) 801-1823	산업부 (02) 801-1841	미디어부 (02) 801-1867	
	경제부 (02) 801-1842	편집부 (02) 801-1851	
	건설부동산부 (02) 801-1843	전국부 (02) 801-1862	
운전부 (02) 3666-0041~3 (외주 인쇄 가능)			
(우)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27 프리랜서빌딩 8층 구독료 월 15,000원 부 800원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최고의 '힐링' 골프장 - 27홀 회원제골프장 + 133객실**

- ※ 2020년 예전 로드랜드 명성의 잔디 100% 복원 예정
- ※ 편백나무 수천 그루의 군락지
- ※ 여름철 모기가 없으며 에어컨이 필요 없음
- ※ 지하 600M 천연지하수

**“코로나19 청정지역”**  
**제주로 오세요!!**

**타미우스 골프&빌리지**  
**특별 무기명회원권 선착순 모집**

**정회원권 1억원**

- 무기명4인 매월12회
- 월~목 2인플레이 가능
- 그린피 주중 2만원, 주말 4만원
- 1일 연타가능

**정회원권 3억(5구좌) / 3억 5천(5구좌)**

- 정회원4인 + 무기명4인
- 매월 주말4회, 주중 10회 그린피 먼저
- 1일 연타가능
- 회수 초과시 주중 2만원, 주말 4만원
- 만기보통금 7년 반환형

- 회원제 27홀 + 133개 빌리지 -

**타미우스 골프&빌리지**  
**리뉴얼기념 디럭스**  
**창립회원권 마감**  
**[4월 분양가 인상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화전길 201  
※ 남/여 사우나, 레스토랑, 리모델링 완료  
※ 20평 전채리모델링 완료

TAMEUS GOLF & VILLAGE	
<b>디럭스 골드</b>	회원1인 + 동반3인
분양가	1,320만원 ▶ 1,700만원(부가세포함)
무기명회원	매월 2회 (주중 5만5천원/주말8만5천원/세금별도)
2인플레이	회원동반시 주중 2인플레이 가능 (월~목)
속박혜택	20평 연간12박 회원대우 (42평가능/2박차감)
분양특전 (5년간)	무료숙박 20평 매년 4박제공 무료라운딩 매년 2회 가능 (회원동반시/숙박 및 라운딩 추중한정) 숙박: 일~목 / 골프: 월~목 ※ 법정공휴일 제외
등기비용	70만원(부가세별도)

TAMEUS GOLF & VILLAGE	
<b>디럭스 로얄</b>	회원1인 + 무기명4인
분양가	1,980만원 ▶ 2,400만원(부가세포함)
무기명회원	매월 8회 (주중/주말 구분없음)
2인플레이	회원동반시 주중 2인플레이 가능 (월~목)
속박혜택	20평 연간20박 회원대우 (42평 10박가능/2박차감)
분양특전 (5년간)	무료숙박 20평 매년 6박제공 무료라운딩 매년 3회 가능 (회원동반시/숙박 및 라운딩 추중한정) 숙박: 일~목 / 골프: 월~목 ※ 법정공휴일 제외
등기비용	110만원(부가세별도)

**입회문의 064)744-6161**